화엄학 강백 30년 연구 망라하다

본각 스님, 〈화엄교학 강론〉 발간… 8일 기념법회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화엄경〉과 화엄 교학 사상을 집대성한 연구서 〈화엄교학 강론〉이 출간됐다.

중앙승가대 명예교수 본각 스님은 6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출판기념법회를 열고 저서 〈화엄교학 강론〉 발간을 대중에 알렸다.

본각 스님은 평생을 화엄학 연구에 매진한 대표적인 비구니 학승이다. 1983년 일본에서 유학중이던 본각 스님은 〈화엄경〉의 방대한 양에 매료돼 이를 평생 연구키로 서원을 세웠다. 긴 유학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스님은 1991년 중앙승가대 교수로 취임한 이래 2016년 퇴임까지 후학 양성과 화엄학 연구의 두 길을 오롯이 걸어왔다.

이번 〈화엄교학 강론〉은 스님이 그간 발표했던 연구논문들은 수정 · 증보해 모은 연구의 정수이다. 책에는 화엄경의 설립과 전래부터 화엄 기본교의와 원융교의, 화엄 수행론까지 방대한 화엄의 세계가 망라돼 있다. 특히 화엄경과 화엄교학을 한데 묶어 소개한 것은 이 책이 가지는 중요한 가치이기도 하다.

〈화엄교학 강론〉은 총 6장과 부록으로 구성됐다. 제1장 '화엄경의 성립과 전래'는 화엄경의 성립 배경과 현존 문헌, 명칭과 해석, 각 품의 개요를 담았다. 발췌된 화엄경의 핵심 경문을 비롯해 깊이 있는 화엄경 공부를 위한 한문 경전의 원문도 함께 수록했다.

제2장 '화엄의 불신론과 세계관'은 화엄경에 나타난 부처님과 그 세계를 소개했다. 화엄의 불신론(佛身論)과 견불의(見佛義), 여래의 10종 광명, 여래의 출현과 성기법문(性起法門), 세계성취와 화장세계에 대한 연구가 담겨져 있다.

제3장 '화엄 선지식론'은 화엄경의 주역인 선지식들을 다뤘다. 특히 선재동자가 만난 53선지식 중 21명이나 되는 여성 선지식의 명칭과 법문을 일일이 표로 정리한 것은 매우 인상적이다.



6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화엄교학 강론〉 출판기념법회'에서 저자 본각 스님이 책과 관련한 강의를 하고 있다(사진 왼쪽). 사진 오른쪽은 본각 스님의 화엄학 연구가 망라된 연구서 〈화엄교학 강론〉의 표지.

화엄경 · 화엄교학 한데 묶어
부록엔 경문 · 문헌 등 수록
"화엄학 공부 길라잡이 되길"

제4장 '화엄의 기본 교의'는 화엄삼매, 화엄 유심의(唯心義)와 십중유식(十重唯識), 화엄법계의 등을 다루며, 제5장 '화엄 원융교의'는 '원융(圓融)'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제6장 '화엄 수행론'은 화엄의 공관(空觀)과 공행(空行), 화엄 보리심론, 화엄 신심론, 화엄계학을 연구한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본각 스님은 화엄을 건립하는 수행의 토양이 바로 공관(空觀)과 공행(空行)에 있으며, 공행의 토양 위에 보리심의 씨앗을 심고 신심(信心)으로 다져 나가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보살의 수행 계위를 거쳐서 불과(佛果)에 오른 다음 불과를 장엄하는 힘이 화엄의 계학(戒學)이라고 저자는 설정하고 있다.

화엄을 공부하는 데에 꼭 살펴보아야 할 경문과 필요한 문헌 및 교의를 정리한 부록편도 눈여겨볼 만 하다. 〈60권본 화엄경〉과 〈80권본 화엄경〉을 대조해 정리한 '이세간품'의 2천 가지 행문(行門)부터 초심자를 위한 '법성게' · '약찬게'까지 수록해 후학들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았다.

본각 스님은 "광대무변하고 심원한 화엄의 숲길을 걸어온 화엄행자로서 〈화엄경〉을 공부하는 데 꼭 기억해야 할 경문과 중요한 교의를 정리하고 싶었다"면서 "〈화엄교학 강론〉이 〈화엄경〉에 가까이 다가가는 통로가 되고, 화엄교학을 연구하는 데 참고서 같은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출판기념법회에는 조계종 고시위원장 지안 스님을 비롯해 권탄준 금강대 명예교수, 김성철 한국불교학회장, 정병삼 숙명여대 교수, 신규탁 연세대 교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부석사관음상 해결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열린다

문화유산재단 7월 4일 토론회

(재)문화유산회복재단(이사장 이상근)은 "오는 7월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서산부석사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소송을 통해서 본 국제협약의 내용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월 1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재)문화유산회복재단 국회의원 자문위원단이 주최한다.

토론회는 김병구 법무법인 우정 대표 변호사, 김예경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경한 법무법인 화현 고문, 이동기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가 참여한다.

토론은 주제 발제가 아닌 공통질문 3개와 개별질문 2개가 주어지고 이를 자유롭게 이야기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참석 대중에게 주제와 관련된 사전 질문을 받아 토론 후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

3회째를 맞는 이번 토론회는 앞서 '불법반출 문화재 환수 현황과 과제' 등을 주제로 올해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신성민 기자

명무 한성준 춤사위엔 불교 내재

조계종 불교사회硏 12일 한성준 조명 학술세미나

수덕사 입산… 춤 원리 터득 만공선사와도 깊은 교분 나눠



근대 한국춤의 거장인 명무 한성준〈사진〉의 예술 세계와 이에 내재된 불교사상을 조명하는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주경)와 한국춤문화유산기념사업회(대표 성기숙)는 6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명무 한성준과 내포의 불교문화 재조명'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제5회 대한민국전통무용제전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성준과 불교와의 인연, 그의 춤에 나타난 불교사상들을 조명하는 논문들이 발표됐다.

이날 성기숙 한국춤문화유산기념사업회 대표(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명무 한성준-한영숙과 내포 불교문화 재조명'을 통해 한성준과 그에게서 승무를 전수받은 손녀 한영숙의 예술세계를 분석했다.

성 대표는 "수덕사는 시대를 앞선 예술가들과 인연이 깊다. 그 중 한 명이 한성준"이라며 "부인이 돌림병으로 죽고 실의에 빠진 한성준은 마음을 다스리고자 수덕사에 입산했고, 그곳에서 명고수 박순조에게 춤과 장단을 배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3년간 칩거하며 수련한 결과 한성준은 춤과 장단의 원리와 조화에 대해 터득하게 됐다"면서 "만공 선사와도 깊은 교분을 맺었고, 수덕사 대웅전 불사에도 시주했다. 특히 만공선사와의 교류는 그의 예술세계를 풍성케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성준에게 춤을 전수받은 한영숙은 조부를 따라 홍성 월산 인근 보덕사로 들어가 승무에 매진했다.

한성준-한영숙으로 이어지는 승무의 미학에 대해 성 대표는 '신명과 고요가 교통'함을 보인다고 한성준의 말을 빌어 설명한다. 그는 "한성준은 춤을 출 때 신명과 고요가 교통하고 공존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며 "고요와 신명은 합쳐진 총체이고 포괄적 작용을 이룬다. 하나이지만 나눠지고 동시에 작용키도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장 주경 스님은 '근현대 한국불교의 종장 만공선사와 춤의 거목 한성준'을 통해 이란 주제발표에서 만공선사와 한성준을 연결시켜 불교와 춤의 관계를 조명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진 토론에는 윤광봉 일본 히로시마대학교 명예교수, 정승희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이병옥 용인대 명예교수, 김복희 한양대 명예교수, 임학선 성균관대 석좌교수, 강춘애 동국대 교수 등이 참석해 한성준의 예술세계에 대해 논의했다.

신성민 기자

진정한 '대방광 불화엄경' 만나고 싶다면

교림출판, 탄허 현토 '대방광 불화엄경 게송' 발간



대승불교 대표 경전 〈화엄경〉의 핵심 가르침을 담은 게송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이 출간됐다.

한국불교 대표 학승 탄허 스님의 제자인 서우담 도서출판 교림 대표는 최근 1000여 쪽 분량의 금장본 〈대방광 불화엄경 게송〉을 펴냈다.

한암 스님의 수제자였던 탄허 스님은 스승의 유촉을 받아 무려 6만여 장의 원고지에 국한문 혼용으로 해석하고 현토를 붙여 '신화엄경합론' 23권을 펴냈다. 〈대방광 불화엄경 게송〉은 이 중 4784개의 게송을 출간한 것이다.

서 대표는 "탄허 스님의 〈화엄경〉은 각성 · 무비 · 통관 · 성일 스님 등 사부대중이 주야로 8개월에 걸쳐 원고를 교정했고, 1977년 전국 강사 80여 명이 스님께 특강을 받으면서 다시 오탈자를 찾아 수정해 완벽에 가깝다"면서 "이번에 발간한 탄허 스님 현토 〈대방광 불화엄경 게송〉은 오탈자가 없고, 현음 현토가 정확하다"고 자평했다.

이어 "불교의 진수가 〈화엄경〉이라면, 〈화엄경〉의 진수는 게송"이라며 "〈화엄경〉 한역(漢譯)에서는 보현행원품까지 포함해 40품으로 59만4741자 4784 게송으로 되어 있다. 최초로 게송에 현음을 붙이고 게송만 뽑아 독송하기 위해 간행하며 번역본까지 첨부했다"고 밝혔다.

향후 서 대표는 〈화엄경〉 본문 전체를 현토해 3200쪽 분량으로 묶어낼 계획이다.

그는 "어려운 한자 때문에 경을 못 보는 사람들도 많다. 〈화엄경〉 40품 원문에 현토를 붙여 한글만 알면 누구나 독송할 수 있는 책을 만들 것"이라며 "640쪽 총 5권으로 묶일 것이며, 전체 금장본으로 영원한 유산이 될 수 있도록 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무형문화재 우수 이수자 지원 기반 마련된다

문화재청, 관련 진흥법 개정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무형문화재 이수자 중에서 보유자(단체)나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우수 이수자를 선정 ·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무형문화재 보전과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6월 14일 밝혔다. 시행 시기는 6월 13일부터.

무형문화재 전승 체계는 '이수자→전수교육조교→보유자' 단계로 이어지며, 이 중 이수자가 가장 많은 인원을 가진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었다.

개정에 따라 보유자(단체) 또는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3년 이상 활동한 이수자 중에서 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우수 이수자로 선정할 수 있게 됐다. 우수 이수자에게는 공연 · 전시 · 교육 · 연구 등 전승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필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성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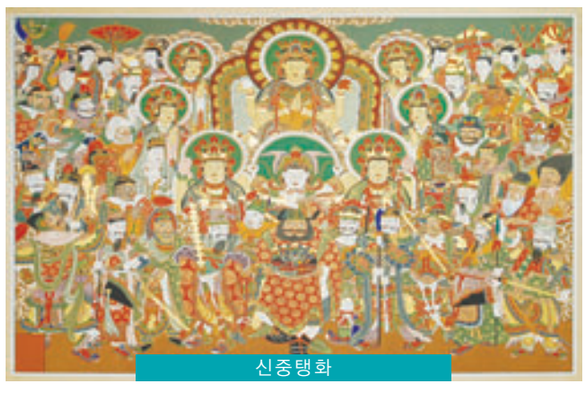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	연 락 처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0-2813-8008
부 산 지 사	이 도 경	051)405-9402 /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512-5003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0-8642-7733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0-9373-3778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